

“퍼엉창!” IOC총회장 “대~한민국” 합성



피말랐던 결정의 순간

강원도 평창의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되자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의 국제컨벤션센터에서는 감격스러운 ‘대~한민국’의 합성이 메아리쳤다.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대표단 100명은 6일 오후 5시(한국시각 자정)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개최 발표식이 시작되자 극도로 초조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자크 로제 위원장이 등장하기 전에 방영된 세 후보도시의 홍보 동영상을 지켜보는 대표단원들은 몸을 가בע게 떠는듯 했다. 기다림은 끝났다는 사회자의 말이 끝나자 로제 IOC 위원장이 단상에 섰다.

세 후보도시 대표단의 시선은 온통 로제 위원장의 입에 쏠렸다.

아프리카 전통복장을 한 소년과 소녀가 IOC 로고가 그려진 흰 봉투를 로제 위원장에게 전했다.

그는 바로 봉투를 열어 안에 든 카드를 내보이면서 말했다.

“퍼엉창!”

대표단은 ‘와~’하는 합성과 함께 일제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고 서로 부둥켜안았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짝 짝 짝 짝 박수와 함께 “대~한민국” 응원이 총회장 안을 메아리 쳤다.

이평박 대통령이 김연아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했고 김연아는 눈물을 흘리느라 바빠졌다. 대표단 모두의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다.

평창의 감격은 발표식 한 시간 전부터 이미 조심스럽게 예견되기는 했다.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각 후보도시의 기호를 정하는 투표에서 안시는 2번, 뮌헨은 6번, 평창은 ‘럭키 7’을 뽑았다. 바로 개최지 투표가 시작됐고 몇 분 지나지 않아 회의의 주재하던 로제 위원장에게 쪽지가 하나 전달됐다.

“투표가 마감됐습니다.”

컨벤션센터 기자회견에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이를 지켜본 한국 취재진 사이에서는 “1차에서 끝났다고?”라

는 흥분된 소리가 들렸다.

독일 취재진은 침묵에 빠졌다.

과반득표 도시가 없으면 상위 두 후보도시가 치르는 2차 투표가 바로 진행된다.

2차 투표로 넘어가려면 로제 위원장이 떨어진 도시를 호명해야 했다.

완승 아니면 완패라는 결론. 평창은 가장 유력한 후보도시로 꼽혔다.

그간 두 차례 평창이 고배를 들면서 공을 들인 게 적지 않기 때문에 투표가 1차에서 마감되면 99% 평창의 유치 성공을 의미한다는 관측도 있었다.

유치위 관계자들은 발표식이 열리기 전부터 축하한다는 인사나 문자 메시지를 나누기도 했다. 독일 기자들도 한국 기사를 보면 “축하한다. 평창이 확실한 것 같다”고 인사를 전했다.

평창과 뮌헨 대표단의 얼굴에도 이미 슬그머니 빛깔이 교차했다.

그러나 발표식 이전에는 개최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예상 밖의 결과가 있을 수도 있기에 건네는 말 자체가 모두 조심스러운 수밖에 없었다.

연합뉴스



평창유치위 홍보대사인 김연아가 7일새벽(한국시각)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동계올림픽 개최도시 발표식에서 평창 유치가 확정된 순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연아 감동 프레젠테이션 희망전도사로 더반 흘렸다

강원도 평창의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에는 ‘피겨여왕’ 김연아(21·고려대)의 역할도 컸다.

김연아는 더반에서 마지막으로 펼쳐진 유치경쟁에서 평창이 밝고 의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데 힘을 보탤었다.

작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에서 김연아가 선보인 사상 최고의 연기는 아직도 세계인의 뇌리에 선명하게 남아 있다.

짧고 건강하면서 열정적이고 우아한 이미지를 지닌 김연아가 세계 톱스타로서의 경외감까지 안겨줘 경쟁도시에는 김연아의 존재 자체가 압력이었다.

평창 유치위의 각종 행사는 홍보대사 김연아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활력이 넘쳤고 김연아가 입을 열면 딱딱한 분위기가 금세 발랄하고 부드러워졌다.

지난 5일 평창의 기자회견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를 앞두고 열린 어떤 행사 때보다 많은 취재진이 몰렸다.

결전의 날인 6일 IOC 투표 직전에 열린 프레젠테이션에서도 김연아가 생기발랄한 이미지로 청중에게 던진 메시지는 강한 호소력을 발휘했다는 평가가 나오

고 있다.

뮌헨이 ‘피겨의 전설’ 카타리나 비트와 축구스타 프란츠 베크엔워를 전면에 내세웠으나 ‘올리건 스타’들의 영향력은 예상만큼 크지 않았다.

김연아처럼 신선한 이미지로 IOC 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호감을 얻는 스타 마케팅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는 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 주제로 삼은 ‘새로운 지평(New Horizons)’의 논리도 최고의 운동선수인 김연아를 통해 더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었다.

그라프티 파이널과 세계선수권대회, 4대륙 선수권대회, 올림픽 피에서 우승해 그랜드슬램을 이룬 ‘피겨여왕’이 새로운 꿈이 있다고 호소하는 것 자체가 신선했다. 강원도 평창을 시작으로 한국,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까지 새로운 영역으로 겨울 스포츠를 전파하는 것이 올림픽 정신에 맞다고 주장할 적임자였던 것이다.

겨울 스포츠의 저개발 지역으로 전에 열린 프레젠테이션에서도 김연아가 생기발랄한 이미지로 청중에게 던진 메시지는 강한 호소력을 발휘했다는 평가가 나오

연합뉴스

유치 주역들 이견희 21만km·조양호 51만km 강행군 평창 지지호소

◇이견희 IOC위원=이견희 IOC위원(삼성전자 회장)은 6일 평창 유치가 결정된 직후 “앞으로 범 국민적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준비해 아시아의 동계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며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계속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2003년 체코 프라하와 2007년 과테말라에서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지난 4년간 외신상담하며 글로벌 유치활동을 펼쳐왔다. 그는 지난해부터 글로벌 유치 행보를 더욱 가속화했다.

지난해 2월 밴쿠버 동계올림픽 참석을 시작으로 이번 더반 IOC 총회 참석까지 약 1년 반 동안 모두 11 차례에 걸쳐 170일 동안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해외출장 기간 동안 총 이동거리만 21만km. 이는 지구 둘 5바퀴 넘게 돈 거리다. 총 110명의 IOC 위원 거의 모두에게 평창 지지를 호소했다.



이견희 IOC위원 조양호 위원장 김진선 특임대사 최문순 강원지사

◇조양호 유치위원장=조양호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장은 대기업 총수가 아닌 스포츠 세일즈 맨이었다. 조 위원장은 “위원장을 맡은 2009년 9월부터 34회의 해외 출장 길에 올라 51만km의 대장정을 이뤘다”고 말했다.

지난 3월16일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열린 아프리카지역 스포츠전담회에 참가한 뒤 귀국한 조위원장은 곧바로 세계체육기자 연맹회의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다시 그날 밤 뉴캐슬도니아로 이동했다. 26일 오세아니아지역 올림픽 위촉 총회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한 후 곧바로 영국 런던으로 이동해 스포츠 어코드에 참석하는 등 한 번 출장을 지구를 한바퀴 돌았다.

그는 섬세함과 배려의 리더십을 보였다. 지난 2월 IOC 평가조사단 입국 시 인천공항공과단과 협의해 평가단이

탄 항공기 주기 장소를 국내항공사가 주기하는 본창사로 변경시켰고, 보딩게이트 앞까지 나가 IOC 평가단을 맞이하는 열정을 보이기도 했다.

◇김진선 특임대사=김진선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특임대사는 개최지 확정과 동시에 그토록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을 하얗게 쏟아냈다. 2003년 프라하와 2007년 과테말라 총회 당시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속에서도 오허리 큰 슬픔에 빠져 있을 300만 강원인들을 생각하며 8년동안 꼭 참아왔던 눈물이다.

“다시 시작하자”며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었던 김 특임대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랜기간 꼭 참고 희노애락을 함께 해온 300만 강원도민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첫 소감을 밝혔다.

◇최문순 강원도지사=“강원도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강원도에 대한 무진한 사랑과 열정이 강원도의 미래 100년을 계획할 수 있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의 꿈을 이뤘습니다.”

남아공 더반에서 유치활동에 최선을 다한 최문순 지사는 역시 개최지 역수장답게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통한 강원도 발전 계획부터 구상하는 열정을 보였다.

그는 출국전 인터뷰에서 “잘대질 수 없는 게임”이라고 필승의 각오를 다졌다. 또 “홍수한 선수가 더반에서 4전5기의 신화를 만든 뒤 외친 ‘대한민국 만세’를 나도 외치고, 300만 도민들도 외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지사는 자크로제 위원장의 ‘평창’ 발표 순간 약속대로 벌떡 일어나 ‘대한민국 만세, 강원도 만세, 강원도 만 만세’를 목청껏 외쳤다.

남아공 더반=강원일보 특별취재단

빛의만평 - 김중두

단 한번도 같이 뛰어 본적이 없다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은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점망 서울 삼성로점(합동점) 상설점 입구: 022276-0577-9 강남점(강남고속터미널) 입: 023477-5110 종로2가점(금강제약) 입: 02733-0220 송파점(선릉역 2번 출구) 02419-3388 경기 안성점(구.시인회관) 입: 031421-2288 부평점(부평역) 입: 032617-5110 수원점(남문) 입: 031246-5110 의정부점(보천로) 입: 031821-6655 안양점(백산소림2001) 입: 031469-0110-1 평택점(평택역) 입: 031658-5110 용인점(용인네거리) 입: 031336-1090 오산점(오산역) 입: 031378-4183 부천점(GS백화점) 입: 032039-4400 부산 시안점(시안로) 입: 051818-8800 서문점 입: 051256-7200 울산 울산점(광명로) 입: 05208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입: 055297-6060 진주점(구.동명시장) 입: 0551745-9870 창원점(한양병원) 입: 055284-5055 대구 동인점(동인네거리) 입: 053425-4440 삼척점(삼척네거리) 입: 053426-1511 남양주점(아리산) 입: 053425-7575 경북 포항점(북구) 입: 054244-5110 안동점(구.인동로) 입: 054859-2248 광주 광주점(구.도동) 입: 062225-5110 광주점(백동광장) 입: 062851-4477 전남 순천점(중앙시장) 입: 061752-8845 전북 전주점(신해로) 입: 063252-5728 군산점(구.시영시장) 입: 063446-0198 익산점(백부시장) 입: 063638-5900 남원점(시영네거리) 입: 063632-2826 대전 대전점(도성) 입: 042254-5110 대전점(충훈로) 입: 042222-3388 대전점(대전역) 입: 042255-4900 울산 천안점(천안역) 입: 041653-2888 광주점(광주문사거리) 입: 041852-5110 충북 청주점(한계로) 입: 043222-1177-6 충북점(삼천로) 입: 043852-1414 강원 강릉점(유정2가) 입: 033647-0588 춘천점(철도광장) 입: 033263-5110 제주 제주점(영랑로) 입: 064753-4356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상당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1538-9388

FDA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ISO 9001인증 국제의료기품질 ISO 13485인증 CE마크 인증 유방공통체 의료용기 제조업체

■ 광주 구도심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 광주 백운동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